

주님의 은혜로 모로코에서 콩고에서 그리고 미국 텍사스 Austin에서

주님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랜시간 동안 제 질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과 인내로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그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열심히 재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로코에서 콩고에서 그리고 미국 텍사스 Austin에서 모로코에서 양육받은 유학생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베스킷 오퍼레이션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로코 장원 선교사 올림--

패전후 아르메니아 소식

주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아르메니아는 44일간 전쟁끝에 패전했습니다. 1천5백여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했습니다. 아라랏티디출신 페스카도레스중에서도 3명이 전사했습니다. 패전의 책임을 물으며 니콜 파시미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는 병원에 입원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고, 나라 전체는 총체적인 위기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8

이 말씀을 제자들과 돌보고있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기위해 ...전쟁의 와중에도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로 약 10만명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오갈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난민 가족들의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난민가족과 특별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난민처소 Refuges Shelter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아르메니아를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라나타!!!!!!!

--아르메니아에서 백승환, 올라 선교사 올림 --



AMC 아동을 위한 아웃도어 스포츠 이벤트



Field Trip and prayer for Nation



피난민 가족 아이들을 위한 의류 바자회



아라랏미션스쿨 24명의 장기선교사 지망생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0년 12월 6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세상이 떠들석하게 하는 코로나가 밀려서 이제는 별판, 농장지역인 이곳에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GMI 가족여러분께 문안을 드리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늘 도움에 주님앞에 감사를 올리며, 은혜 선교국 그리고 한기홍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상이 떠들석하게 하는 코로나가 밀려서 이제는 별판, 농장지역인 이곳에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기도와 예배그리고 복음사역을 은혜와 사랑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달전 비스카이노(라파스 왕중왕교회 가기전에 중간 기착지이며, 센타에서 10시간거리,동역교회지)리카시오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4개월 동안 아픔가운데 있다가,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30분거리에 있는 산텔모 여호와 닛시 교회 마리아 목사(신학 1년 수료. 재학생)께서 코로나로 소천하셔서 지난 토요일 장사를 지내고 돌아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일주일 동안 상킨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홀게목사(1기 졸업생)의 코로나 전염병이 호전 되지않아, 엔세나다로 옮겼는데 현재 심장만이 조금 움직이는 코마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중보기도올립니다. 홀게는 12년전에 테카테 은혜교회 개척 회원으로, 마약중독으로 노숙자 촌에서 살다가 종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후, 신학을 4년하고 목사임직을 받고, 현재까지 산텔모에서 사역을 하다가 토로나에 전염이되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티화나 큰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의사와 가족들이 포기 하여 현재 엔세나다 병원에 있습니다그러나 100여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생명줄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홀게의 많은 사역을 다시 감당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연장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없이 무능한 선교사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센타의 주말 제자반을 지난주간부터 쉬고 있습니다. 별판에서 드리는 주일 야외 셀교회 예배만 드리집니다. 아마도 제한적이긴하나 심방도 외부 출입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 로나로 인해 많은 농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강의를 인쇄를하여 각 교회와 셀리더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성경공부66권을 2년전부터 인쇄 공급 공부하게 했지만, 단본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줄 믿읍니다. 이번 성탄절 연합 축하예배는 드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선물을 각교회와 셀교회에 배달이 되도록 500개의 선물봉지(7불상당 선물)나누어 지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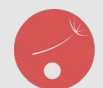
티화나 테라스스 철거민 촌에 천막교회를 세웠읍니다 3X6m 천막과 25의자를 놓고 주간 2번의 예배를 드리는 셀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 주셨읍니다, 현지 목사가 목회를하게 됩니다.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막지원과 미니벤 차량, 예배용 앰프, 매월2500개스비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놀라운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리고 성령의 강권함이 어려운 이시기에 놀랍도록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GMI 가족들의 강건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

---인디오 섬김이 멕시코 이종식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언16:3)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인도에 는 한창 빛의 신을 섬기는 디왈리 축제를 막 마치고 코
로나 방역수칙이 완화 되어진 상태에 기차와 모든 대중교통이 통제가 풀리면서 저희 사역들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심방사역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 해주고 말씀과 더불어 신앙서적을 나누어 주면서 다시 주님과
의 교제를 할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방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회사역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 집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에게 찬양과 그리고 기초
적인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역 공과공부 사역
구역 공과 공부도 조심스럽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경공부 에 갈급해서 서로 자기집 에서 먼저 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
름다운 선한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간절 했습니다.“

- ☞ 기도제목
- 1.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 2.다시 조심스럽게 하는 사역들이 주안 에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3.사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4.저희 가족들의 영육 간에 강건과 선교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인도 콜카타 정OO, 전OO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1. 헬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받았습니다 잘회복되고 완치될수있도록 주님의치유의손길을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 2. 터키양창모 선교사님이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 3. 센떼페스베르그 조경호선교사님의 뇌종양 수술이 하나님의은혜가운데 잘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끝까지완쾌될수있도록계속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 4.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5. 네팔 이에신 선교사--10월말에 5차항암전PET CT에서암세포들이영덩이부분에만남아있다고합니다
11월21일부터6차항암을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가운데 주님의궁핍의 손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남국회 선교사 입니다.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사역과 학교 사역은 할 수 없었지만 오
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전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선교지를 위하
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격려와 물질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기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디왈리 축제 후에 비
가 오더니 많이 추어졌습니다. 홀리와 디왈리를 지나면 계절의 변화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는 공기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이 많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게 됩니다.

사역 나눔
1.빈민가에 있는 유치 반부터 2학년까지 운영하던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휴교상태입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다
시 만날 시간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한 지역의 신학교에서 7월부터 하던 강의를 며칠 전에 잘 마쳤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함께 배우며 몸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
양하는 시간 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과목으로 학생들과 만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강의준비와
언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3.나눔이 필요한 곳에 기도하며 행복 나눔을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니 제 마음이 기뻛고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
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놀랍도록 채
우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 기도 제목
- 1.이곳 어린이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외우지만 소설책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과 영어 교육을 통합하는 신나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
록 저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악기, 영어, 사진 등 가르치고 싶은 것
이 많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락다운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신학생들에게 겨울 외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이 그리울
텐데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 3.주님의 뜻을 날마다 삶에서 이루는 제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4.2021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5.12월과 1월은 각종 서류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인도 운전면허증 갱신, 집 계약연장, 외국인등록연장, 세금 정산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일들이 언제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모든 행정 절차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
도해 주세요.
 - 6.집에서만 지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도남OO 선교사--



아사그린스쿨 학생들

신학생들



행복나눔가정

